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8. 6. 25.(월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첨단항공과	담 당 자	• 과장 오원만, 사무관 정재원, 주무관 원정운 • ☎ (044) 201-4315, 4290
유관 기관	항공안전 기술원	담 당 자	• 무인항공연구실장 강창봉, 선임연구원 김승한, 연구원 류현슬 • ☎ (032) 727-5751, 5616
보 도 일 시		2018년 6월 26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.25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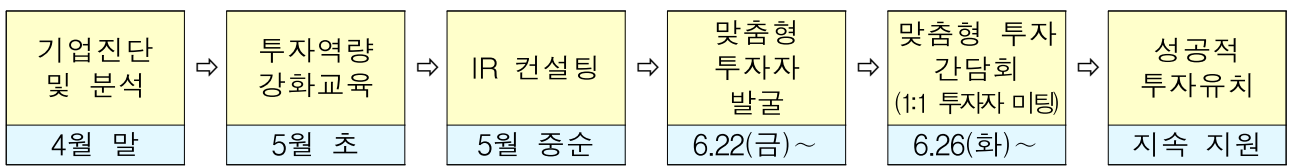
국토부, 투자유치간담회 개최...드론 스타트업에 '지금 물꼬' 터준다

이달 26일부터 드론 스타트업-전문투자자간 매칭지원 착수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국내 드론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투자간담회를 오는 6. 26.(화)부터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내 드론 안전·활성화 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.
 - 그간 정부는 건전한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'드론 안전·활성화 지원센터'를 구축하고, 드론 스타트업·벤처기업(22개사*, 예비창업 또는 창업 7년 이내)에게 입주공간 제공, 컨설팅 등 기업역량강화**를 추진('17.9~) 중이다.
 - * 기업현황 :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드론 관련 스타트업·벤처기업(22개사) 입주 (드론 기체개발-9개/활용-8개/부품제조-2개/S/W개발-2개/기타(교육)-1개)
 - ** ①사무실, 회의실 등 창업지원 공간 지원 ②시뮬레이터, 3D프린터 등 각종 테스트 장비 제공 ③세무·법률·특허·마케팅·경영 등 전문가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
- 벤처·스타트업의 경우 사업의 안정화 및 자립화를 위한 민간 투자유치가 절실하나 사업계획서 작성, 주요 사업분야의 벤처캐피탈(VC) 접촉, 투자조건 조율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.
 - 특히, 국내 벤처·스타트업의 경우 창업지원자금, 보증 등 정책자금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, 민간투자 유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투자기반(기업가치, 사업성 진단 등)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었다.

- 이에, 지난 4월부터 △기업진단 △역량강화(투자전략 수립 등) 교육 △투자유치제안서(IR) 작성 △맞춤형* 투자자 발굴 등을 추진했다.
 - * 초기 창업형 기업(5억이하, 평균 투자유치금액) 및 성장형 기업(5억이상, 평균 투자유치금액)의 두 부류로 나누어 기업성장단계에 적합한 투자자 발굴
- 본 간담회에서는 드론 추락 시 피해방지를 위한 에어백 기술, 영상 인식기반으로 자율적으로 드론-조종자간 거리를 유지하는 기술 등도 소개될 예정이다.



<민간 투자유치 지원 추진체계>



□ 국토교통부 주현종 항공정책관은 “이번 투자유치 간담회가 국내 드론산업에 있어 민간의 선순환* 투자구조를 조성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.” 면서,

* 민간의 선순환 구조: 투자 → 성장지원 → 회수 → 재투자

- “앞으로도 벤처·엔젤 투자자 등 국내 투자기관과 유망 스타트업간 1:1매칭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다.” 라고 밝혔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드론과 관련된 내용은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정재원 사무관(☎ 044-201-431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	---	--